

# 올림픽 스타, 꿈나무 하나돼 광주 양궁 미래를 쏜다

제35회 광주시양궁협회장배 증별대회 성료

제35회 광주광역시 양궁협회장배 증별대회

■기간: 2026. 5. 7.(목) ~ 8.(금)  
■장소: 광주국제양궁장  
■주최: 광주광역시양궁협회

초·중·고·대·실업팀 200여명 참가  
멘토·멘티 '우의 다지고 실력 겨루고'  
김광아 회장, 선수단 전원 유니폼 증정



김광아 광주시양궁협회장이 선수단 유니폼 증정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지난 8일 광주국제양궁장에서 열린 제35회 광주시양궁협회장배 증별양궁대회 개회식이 끝난 후 김광아 광주시양궁협회장, 전갑수 광주시체육회장 등 내빈들이 참가 선수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조영권 기자

광주 양궁을 빛낸 주역들과 꿈나무들의 한마당 축제인 제35회 광주시양궁협회장배 증별대회가 지난 8일 광주국제양궁장에서 성료했다. 광주시양궁협회가 주최한 이번 대회에는 성진·염주·문산·두암·삼정·유춘초 등 남녀 초등부 6개 팀, 동명·윤리·광주체육중(남여) 등 중등부 4개 팀, 고등부 광주체고(남여), 대학부 조선대(남)·광주여대, 실업팀 남구청(남)·광주시청(여)·광주은행(여) 등 선수·지도자 200여명이 참가해 기량을 겨뤘다. 1988년 광주시양궁협회가 창립된 이후 매년

열렸던 광주시양궁협회장배 증별대회는 그동안 대한민국 양궁 발전에 큰 기틀을 마련한 유서 깊은 대회로 명실상부 국가대표 등용문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특히 전·현직 국가대표 선수들과 양궁 꿈나무들이 같은 장소에서 양궁으로 소통하고, 멘토와 멘티로서의 유대감을 키워가며 뜻 깊은 추억을 만들어가는 대회로 그 의미가 크다. 초등부와 중등부는 오는 23일부터 부산 일원에서 열리는 전국소년체전을 앞둔 마지막 실전 대회로 경기력 점검에 좋은 기회가 됐다. 이날 오전 열린 개회식에는 김광아 광주시양궁협회장, 전갑수 광주시체육회장, 황인재 광주시 문화체육실장, 이경수 광주매일신문 대표이

사, 엄길훈 광주체육고 교장 및 육성학교 교장 등 내빈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김광아 광주시양궁협회장은 "올해로 35회를 맞은 광주시양궁협회장배 증별대회는 빛고을 양궁 전 종별 선수들이 모여 실력도 쌓고 선배 우의도 다지는 대회임은 물론 빛나는 광주양궁의 역사와 전통을 이어가는 뜻 깊은 대회"라며 "오늘 여러분들이 쏘아 올리는 화살 하나가 훗날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를 제패하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전갑수 광주시체육회장은 "광주는 아시아를 넘어 세계양궁인들이 주목하는 명실상부한 '양궁 도시'다. 그 바탕에는 광주시양궁협회, 육성학교 교장선생님들, 지도자, 선수들의 하나된 열

정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올림픽 금메달리스트를 3회 연속 배출하고, 전국체육대회를 비롯해 각종 전국대회에서 효자 종목으로 우뚝 선 광주 양궁의 원동력은 초등부부터 실업팀까지 촘촘한 연계 육성 시스템이 구축된 힘이라 생각한다. 광주시체육회 종목단체 중 가장 모범적인 협회 운영으로 광주체육 발전에 앞장 서는 광주시양궁협회에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고 말했다. 개회식에 이어 김광아 광주시양궁협회장의 대회 출전 선수 유니폼 증정식과 광주시체육회의 양궁발전 격려금 전달식이 진행됐다. 한편 대회 결과 초등부에서는 광래우(삼정초)와 김지윤(유춘초)이 각각 1위에 올랐다. 양지원(성진초)과 김주성(염주초)이 남초부 2, 3

위를, 김현아(염주초)와 윤혜원(유춘초·1천283점)이 여초부 2, 3위를 차지했다. 남중부에서는 김준서(광주체중)가 1위를, 이성운(윤리중), 조여준(광주체중)이 2, 3위를 차지했다. 여중부에서는 이설하(광주체중)가 1위를, 고윤우(동명중), 이경민(동명중)이 각각 2, 3위에 자리하는 선전을 펼쳤다. 고·대·일반 남자부 통합전에서는 심유한(광주체고)이 1위, 이원주(남구청)가 2위, 이승운(남구청)·한승재(광주체고)가 공동 3위를 차지했고 여자부에서는 김세연(광주시청)이 1위, 나민지(광주시청)가 2위, 이수연(광주여대)·정지서(광주시청)가 공동 3위를 기록했다. /박희중 기자

## 3회를 못 버틴 이의리... "스윙은 무리였다"

KIA, 롯데전 3대7 역전패...박재현, 3경기 연속 멀티히트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가 연승을 이어가지 못했다. 다만 사직 원정 3연전을 워닝시리즈로 마치며 한 주를 마무리했다.

KIA는 10일 부산 사직야구장에서 열린 롯데 자이언츠와의 원정 경기에서 3-7로 역전패했다. 시즌 성적은 17승 19패 1무(승률 0.472). 두산과 함께 공동 5위에 자리했다.

초반 흐름은 나쁘지 않았다. 그러나 선발 이의리가 흔들리며 분위기를 내줬다. 경기 초중반 롯데 타선을 막아내지 못했다.

이의리는 22이닝 동안 4피안타 3사사구 4탈삼진 4실점으로 시즌 4번째(1승)를 떠안았다. 총 투구 수는 73개, 스트라이크 40개, 볼 33개였다. 승부가 갈렸고, 위기마다 안정감을 주지 못했다.

볼펜도 엇갈렸다. 김태형이 12이닝 3실점했고, 한재승과 최지민, 이형범은 무실점으로 버텼다. 타선에서는 리드오피 박재현의 활약이 돋보

였다. 4타수 2안타로 3경기 연속 멀티히트를 이어나갔다. 김도영과 아테를린, 김규성은 각각 1타점을 올렸다.

KIA는 1회 선취점을 뽑았다. 1사 1,2루에서 김도영이 1타점 2루타를 터뜨렸고, 아테를린의 희생플라이로 2-0을 만들었다.

하지만 리드는 오래가지 못했다.

2회말 1실점한 뒤 3회 급격히 흔들렸다. 선두타자 볼넷 이후 3루타로 동점을 내줬고, 이어진 내야안타 때 역전을 허용했다. 2사 이후에도 볼넷과 안타가 이어지며 추가 실점했다. 이닝을 끝내지 못하면서 주도권은 롯데 쪽으로 넘어갔다.

5회는 사실상 승부가 갈렸다.

KIA는 4안타와 몸에 맞는 볼, 밀어내기 볼넷 등이 겹치며 3점을 더 헌납했다. 마운드가 버티지 못하는 사이 점수차는 2-7까지 벌어졌다.

9회초 마지막 기회는 있었다. 나성범의 볼넷과 한준수의 2루타로 무사 2루를 만들었고, 김규성의 적시타로 한 점을 만회했다. 하지만 후속타가 터지지 않았다.



KIA 이의리 (KIA 타이거즈 제공)

패배에도 주말 3연전 결과 자체는 나쁘지 않았다.

KIA는 앞선 롯데와의 두 경기에서 모두 승리를 거뒀다. 주간 성적은 3승 3패. /주홍철 기자



동아일보기 전국소프트테니스대회 남자일반부 단체전 우승을 차지한 순천시청 선수단. 왼쪽부터 조성재 감독, 추문수, 이희성, 윤지환, 강해준, 이민석 (전남도체육회 제공)

## 순천시청·순천대 소프트테니스 동아일보기 단체전 동반우승 쾌거

순천시청과 순천대가 제104회 동아일보기 전국소프트테니스대회 단체전 동반우승을 차지했다.

순천시청은 지난 9일 경북 문경국제소프트테니스장에서 열린 대회 남자일반부 단체전에서 서울시청을 꺾고 창단 첫 대회 우승기를 들어올렸다.

순천시청은 에이스 이하늘, 류태우의 국가대표 훈련 차출로 인한 전력 공백 속에서도 입단 2년차 신예 이희성(24)의 맹활약을 앞세워 지난 3월 회장기대회 3연패에 이어 시즌 2관왕이라는 쾌거를 이뤘다.

특히 조성재 감독이 직접 선수로 출전해 김태정 서울시청 감독과의 맞대결에서 마지막 복식경기를 승리로 장식하며 극적인 우승을

완성시켜 눈길을 끌었다.

순천대는 남자대학부 단체전 결승에서 대전대를 2-0으로 제압하고 1992년 창단 이후 대회 사상 첫 우승의 감격을 안았다.

순천대는 지난해 제93회 대통령기 전국소프트테니스대회 우승에 이어 이번 동아일보기 정상까지 차지하며 대학 소프트테니스 강호로서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했다.

송진호 전남도체육회장은 "순천대와 순천시청의 동반 우승은 전남 체육의 탄탄한 육성 체계와 현장 중심 지원이 만들어낸 값진 결실"이라며 "전남 선수들이 전국무대에서 지속적으로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과 우수한 스포츠 환경 조성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박희중 기자

## 김효주, 4년 7개월 만에 KLPGA 투어 우승

NH투자증권 챔피언십 제패

여자골프 세계랭킹 3위 김효주가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 무대에서 4년 7개월 만에 우승 트로피를 들었다.

김효주는 10일 열린 NH투자증권 레이디스 챔피언십 마지막 날 3라운드에서 버디 3개, 보기 2개를 묶어 1언더파 71타를 치면서 최종 합계 9언더파 207타로 우승했다.

그는 박현경(8언더파 208타)을 한 타 차로 뿌리치고 투어 통산 14번째 우승(아마추어 우승 비포함)의 영예를 안았다.

2021년 10월 SK네트웍스·서울경제 레이디스 클래식 이후 처음으로 KLPGA 투어에서 우승



김효주 (KLPGA 공식 홈페이지)

한 김효주는 우승 상금 1억8천만원의 받았다.

김효주는 올 시즌 LPGA 투어 6개 대회에서 2승을 거뒀고, 시즌 첫 KLPGA 투어 출전 대회에서 우승하며 상승세를 이어갔다. /연합뉴스

## '움직이는 체육관 스포츠버스' 서구가족센터에 떴다!

찾아가는 생활체육서비스 시민 건강회합도도 다양한 참여 기회 제공 스포츠 복지 사각지대 해소

광주시체육회가 대한체육회 공모로 선정된 '움직이는 체육관 스포츠버스' 사업을 실시했다.

광주시체육회는 지난 9일 서구가족센터 공동육아 나눔터에서 센터 소속 학생들과 학부모, 지역주민 등 80여명이 참여해 움직이는 체육관 스포츠버스를 운영했다. (사진)

지역 유·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체육활동 참여 기회를 제공해 꿈과 희망을 키우고 평생 생활체육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된 이날 행사는 스포츠버스 체험, 작은 운동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서로 교류하고 화합하는 시간이 됐다.

특히, 전문 강사의 진행으로 VR 및 WII PLAY 체험존에서 펜싱, 양궁 등 평소 접하기 어려운 종목을 체험하고 볼풀공 던지기, 고무마릴레이 등을 통해 친구들과 땀 흘리며 즐기는 작은 운동회도 펼쳐져 큰 호응을 받았다.



전갑수 광주시체육회장은 "'움직이는 체육관 스포츠버스'는 스포츠가 우리 동네로 직접 찾아오는 새로운 개념의 사업"이라며 "스포츠도 복지인 만큼 사각지대 없이 누구나 스포츠를 즐기는 환경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희중 기자